

서울 당고개·난곡에 홀로사는「老人村」

자식 생이별... 서러운 「黃昏」

95. 9. 2

격포 총리

현대판

高麗葬

< 1 >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선전국 대열에 접어들어 한국의 수도 서울. 현대화의 각종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면엔 상상도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집단으로 주거하고 있는 「현대판 고령자(高麗葬)」 마을이 연이어 존재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재개발지역 판자촌에 모여 있으면서 시를 어가고 있다. 조상의 땅을 추방하고 수탈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추석을 맞아 이들의 절망적인 한숨이 더하다.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中央日報 특별취재단이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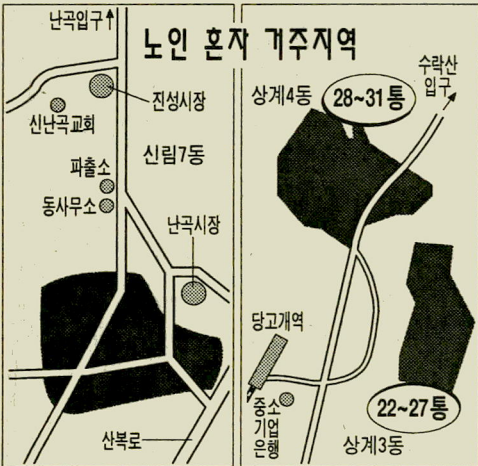
서울노원구상계4동 산 노인이가쁜 숲을 몰아쉬 동네 소정 「당고개 판자」며 노닐었다. 지난달 20일 1평 남 노인이 「부근 상계5동 업」씨에 의해 지난 5월 지원 방안에서 金(85)에서 전세보증금 3백50만 2일 이곳에 버려졌다.

집주인 「씨」는 金(노인)로부터 빌린 8백여만원과 전세보증금을 때리기 위해 월세 5만원의 사들세 방을 얻어 강제로 이사시킨 것이다. 「씨」는 경기도남양주시 화정리 개사육 비닐하우스로 金(노인)을 끌고가 1주일 동안 개와 함께 사육장에 갇혀두기도 했다. 金(노인)에게는 연연히 중 소견행사 사장인 아들 판자촌이 다다라 불어있



혼자 사는 노인이 1백명가량 집단거주하는 서울노원구상계 4동 당고개 판자촌의 할머니들이 1일 낮 골목길에 모여 앉아 무료함을 달래고 있다. <朴淳培기자>

社長아들 두고도 不和 못 견뎌 家出



이 판자촌에서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자식과의 불화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1백여명. 마을 한복판 李(75)

아침 라면·점심은 과자로 끼니 때워
「자식있다」 생활보조비 안줘 「취로사업」

- 〈글쓰는 순서〉
- ① 서울난곡·당고개 홀로 老人村
 - ② 수용시설에 버려진 노인들
 - ③ 길거리 떠도는 노인들
 - ④ 문제점과 대책

노인이 「사는 곳」은 한 평판크기로 한사람이 푹바닥으로 누워 생활. 정도의 방 하나와 간이부엌이 전부

다. 그는 보통 아침엔 라면, 점심엔 초코파이, 저녁엔 과자·빵 부스러기로 때운다. 동사무소에서 약간의 쌀을 대주지만 끓여 먹을 기운이 없다.

자식이 없는 사람도 그 래도 생활보조비로 월 7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李씨처럼 연연히 자식이 있는 상당수 노인들은 한 달에 10여만원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취로사업을 나가야 한다. 그나마 병든 노인들이 병원에 못가고 집안에서 통곡을 달래는 것이 하루 일과다.

당고개에 노인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5, 6년전부터. 다른 곳에서 사들세도 살지 못하는 노인들이 이곳으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관할 공무원의 얘기가.

서울노원구상계7동 판자촌도 1백20여명의 노인들이 혼자사는 「홀로노인촌」이다. 3평짜리 방 한 칸에서 사는 金(76) 노인도 30년전 아내를 잃고 강원도 손조의 큰 아들집에서 2년간 같이 생활했으나 친구들의 파동으로 반강제로 집을 나왔다. 지난 20여년동안 18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있다는 金씨는 얼마전 난곡지역으로 옮겨왔다. 한달전 길에서 넘어져 뒤늦게가 터지고 눈썹이 붓고 두리저리 동조차 못하게 돼 대기업과자인 아들집에 전화를 했으나 「왜 자꾸만 전화하느냐」는 말만 듣고는 물의를 피우기 위해 없었 다고 한다. <특별취재단>